

# 부활한 '코리안 메시' 이승우, 벤투호 재승선하나

K리그 4경기 연속 환상골... 득점 8골로 공동 4위  
FIFA도 주목... 내달 동아시아컵 차출 가능성 높아  
유럽 재진출도 준비... 3년 만에 태극마크 달지 관심

부활한 '코리안 메시' 이승우(24·수원FC)가 벤투호에 재승선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승우의 골 폭풍이 거세다. 지난 25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2 18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수원FC의 3-0 완승을 견인했다. 4경기 연속 득점으로, 시즌 8호골에 성공한 이승우는 엄원상(울산)·김대원(강원)과 득점 공동 4위에 올랐다. 이승우의 활약에 수원FC는 올 시즌 첫 3연승 행진을 달렸다. 매 경기 득점 장면도 인상적이다. 지난 21일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선 코너킥 찬스에서 환상적인 오른발 발리골을 터뜨렸다. 2004년 독일과의 친선경기에서 라이언킹 이동국이 성공시킨 발리슛을 연상하게 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이승우의 환상골에 주목했다. 지난 23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승우의 포항전 발리골을 소개하며 "K리그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K리그가 우리를 태그해 이승우의 골이 '푸스카스'로 아는지 물었다"고 적었다. 푸스카스는 FIFA가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터진 골 중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토트넘)이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번리전 '70m 슈퍼골'로 2020년 수상한 바 있다.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이승우는 이탈리아-포르투갈 벨기에 무대를 전전하다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올해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국내 무대에 진출했다. 유럽에서 실패한 이승우의 K리그 진출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으나, 실력으로

이를 날려 버렸다. 이승우의 부활은 스페인에서도 화제다. 현지 매체 스포르트는 28일 "이승우가 부활했다"며 "수원FC에서 이번 시즌 8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승우의 대표팀은 복귀가 관심이다. 또 수원FC에서 많은 경기를 뛰면서 유럽 재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승우는 유럽과 중동 팀들의 제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럽게 대표팀 승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승우는 2019년 6월11일 이란과의 평가전을 끝으로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고 있다. A매치 통산 11경기 0득점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내달 7월 일본에서 개막하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컵판인심(동아시아컵)에 나선다. FIFA가 주관하는 A매치 기간이 아니라 손흥민·황의조(보르도)·김민재(제네라체) 등 해외파 차출이 어렵다. 국내와 중심으로 팀을 꾸릴 경우 K리그에서 물 오른 기량을 자랑 중인 이승우의 발탁 가능성이 크다. 이승우는 벤투호 '황태자'인 나상호(서울)를 비롯해 권창훈(김천)·송민규(전북)·엄원상 등과 경쟁해야 한다. 스키아데일리/뉴스시스



부활한 '코리안 메시' 이승우(24·수원FC)가 벤투호에 재승선할지 관심이 쏠린다.

프로축구연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활약하는 톱스타들의 홍보모델 화보 사진이 공개됐다.

KLPGA

## KLPGA 톱스타들 '화려한 변신은 무죄'

골프 팬 온라인 투표로 11명 선발... 평소 좋아하는 종목 의상 입고 홍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활약하는 톱스타들의 홍보모델 화보 사진이 공개됐다. 골프 팬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제14대 KLPGA 홍보모델은 김재희(21·메디힐)·박민지(24·NH투자증권)·박현경(22·한국토지신탁)·송가은(22·MG 새마을금고)·안지현(23·메디힐)·이가영

(23·NH투자증권)·이소미(23·SBI저축은행)·임희정(22·한국토지신탁)·장하나(30·BC카드)·조아연(22·동부건설)·허다빈(24·한화큐셀) 등 11명의 선수다. 이번 화보 촬영은 △Professional KLPGA! △Twinkle KLPGA! △We Love Sports, We Have Passion! 등 세 가지 콘셉트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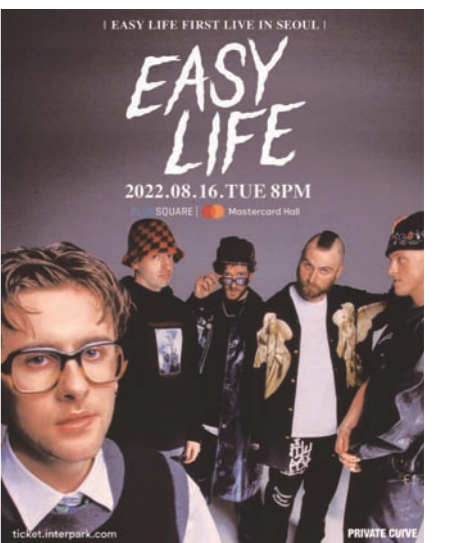
선수들은 테니스·야구·스케이트·승마 등 평소에도 즐기거나 경험해보고 싶었던 스포츠 종목을 직접 골라 촬영을 진행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의상을 입은 홍보 모델들의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 있어 팬들의 눈길을 끈다. 스키아데일리/뉴스시스

## 영 얼터너티브 록 밴드 '이지 라이프', 8월 첫 내한공연

16일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 다양한 장르 음악 선사

영국 레스터(Leicester) 출신 얼터너티브 록 밴드 '이지 라이프(Easy Life)'가 첫 내한공연을 한다. 29일 공연 기획사 프라이빗 커브에 따르면, 이지 라이프는 오는 8월16일 오후 8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국내 팬들과 처음 인사한다. 2017년 싱글 '포켓스(pockets)'로 데뷔한 이지 라이프는 머레이 메트레이버스(Murray Matravers-메인보컬)·올리버 캐시디(Oliver Cassidy-드럼)·샘 휴이트(Sam Hewitt-베이스)·루이스 베

리(Lewis Alexander Berry-기타)·조던 버틀즈(Jordan Birtles-키보드)로 구성됐다. 매년 주목할 만한 차세대 뮤지션을 선정하는 'BBC 사운드 오브 더 이어(Sound of the Year) 2020'에서 2위를 차지했다. 마카, 아델, 샘 스미스 등이 이영예를 거쳤다. 이지 라이프는 힙합·재즈, 앰비언트 하우스·사이키델릭, 아프로 비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경쾌하면서도 평온한 사운드와 그윽한 보컬을 들려준다.



8월 첫 내한공연을 갖는 영국 밴드 '이지 라이프'. 프라이빗 커브

**BEYOND GOLF**

**550cc 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